

사별에 대한 한국 문화적 접근

임 승 희*

1. 서론

사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경험이다. 사별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어진다. 애도 의례, 애도 반응, 슬픔 표현방식, 죽은 사람과의 관계 설정 등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사별과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사별가족들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의형적으로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형식을 넘어 문화 가운데 배어져 나오는 생활 방식들은 아직까지도 현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전통적 죽음관과 애도의 과정을 살펴, 한국의 사별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별가족을 돕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먼저 죽음, 사별과 한국종교의 연결성을 보았고, 두 번째로 유교의 애도의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전통적 애도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로, 이러한 한국인의 애도과정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문화적 가치와 규범들이

애도문화에서 강조되었는지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애도문화의 변화와 전통적 애도 문화의 의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2. 죽음, 사별 그리고 한국인의 종교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부정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죽음은 두렵고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Kim: 1999; Heo: 1999). 그래서 사람들이 상한 사람의 집을 방문 하였을 때는 악한 기운이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여 고대 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고인이 사용하던 집을 태워 버렸고, 특히 죽은 아기, 결혼하지 않고 죽은 젊은 청년의 죽음의 영은 모두 한 많은 죽음으로 간주하여 이런 죽음은 정상적인 애도의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런 죽음은 다르게 다루어졌고 죽음에 대해서조차 말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김: 1999). 한국인의 죽음관과 애도 의식은 전통적인 종교 샤머니즘, 불교 그리고 유교(Park: 1994; Heo: 1999)에 영향과 최근 기독교에 영향을 받았다.

샤머니즘적 관점

샤머니즘적 죽음관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강하고 악한 세력에 의해 발생되어지

* 세브란스 호스피스 사회복지사, 송실대, 강남대 출강

고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은 악령과 연결이 되어 있고 죽은 후에 영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조상에 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Ju: 1980). 샤머니즘적 죽음관에는 복된 죽음과 악한 죽음이 있다. 복된 죽음은 장수하고 행복한 인생을 가졌었고 부유한 자녀들과 죽을 때는 잠자듯이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죽은 사람은 아무런 원한이 없이 곧바로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다. 반대로 사람이 젊었을 때 질병으로 죽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원한의 죽음이라고 하여, 그런 영혼은 이승을 떠돌고, 떠도는 영혼은 저승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불운하게 영혼은 귀신이 되어 세상을 떠돌며, 복수할 대상을 찾는다. 이런 고인의 영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원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사고사라든가, 객사라든가, 무엇인가를 다이루지 못하고 죽은 경우라든가, 질병으로 혹은 젊었을 때 죽은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이런 종류의 죽음의 원인은 사별가족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이런 죽음에 대해 가족내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금기적 주제(a taboo subject)로 더욱 간주되어 진다. 이런 영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주위를 맴돌며 문제를 일으키므로 이 고인의 영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김: 1999). Rosenblette et al.(1976)에 의하면 이런 유령(ghosts)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보여 진다고 하였다.

이런 고인의 영혼과 사별가족들을 위해 샤머니즘에서는 굿이라는 의식을 발전시켰다. 특히 셋김굿은 원한이 남을 만한 죽음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굿으로써 사별 후 약1년이 지난 후 거행되는데(Cho: 1999), 이 굿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원한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사별가족들은 고인이 굿을 통해 이승에 있는 미련을 버리고 깨끗한 영혼으로 저승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굿을 하는 동안 무당은 고인의 사별가족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슬픔과 사별로 인한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같은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슬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Kim: 1999). 그래서 고인의 가족들은 고인의 저승에서의 편안한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굿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불하였다.

특히 고인이 사고나 갑작스런 죽음은 경우에는 사별

가족들은 이 의식이 거행된 후, 정서적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개방적으로 슬픔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의식이 거행되는 이 과정은 사별가족을 위한 하나의 치료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당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사별가족이 고인과 밀착된 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별가족을 돕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적 관점

불교는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천당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영혼불멸의 인과응보와 관련된 업보를 강조한다. 죽음 후, 사람들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Ryu: 1978:89). 불교도들은 죽은 순간 영혼은 잠자는 것 같은 중립의 상태를 갖게 되고, 이 상태에서 49일 동안 영혼은 여행을 하게 된다. 이때 사별가족들은 계속하여 49일 동안 날마다 고인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종교의식을 계속 드린다. 비록 고인이 좋은 행실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 고인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절에 있는 승려들은 49일 혹은 100일 동안 고인을 위해 고인의 후손들을 대신하여 매일 제를 올린다. 그러나 자살로 죽은 경우에는 영혼이 정화되어 '죽음의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와 같이, '제수제'는 불교의식으로서 고인의 미래의 삶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이나 사별가족들은 이 의식을 통해 가족들이 고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위안을 받고 할 수 있겠다(Cho: 1990).

이 의식이 끝나면, 사별가족들은 고인의 이름을 절에 올려놓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종교의례를 드린다. 이것은 고인과 사별가족과의 지속적인 연결성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불교신자들은 의례를 드릴 때, 비탄과 소리 내어 우는 것 대신에 '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외우며 부처에게 기도하기를 격려한다. 이것은 불교의 죽음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 보다는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초월하려는 기본적 자세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별가족이 우는 것 대신에 드러지는 기도는 우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인도의 불교와 비

솟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한국의 절에서는 그들의 슬픔을 승화하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이러한 불교의 전통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기를 꺼리고 슬픔 감정을 억누르는 한국인의 슬픔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유교적 관점

한국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실제 살고 있는 이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으나 죽음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 하고 자손들의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주요한 의무로 간주하였다(Choi: 2000:90). 이것은 유교가 확실하게 죽은 영혼과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유교는 조상 숭배와 애도과정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불교와 반대로 유교에서는 장례의식이나 애도의식에서 공식적 규칙에 따라 우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것을 의식의 방법 중 하나로 이용하였다.

많은 양의 유교경전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적절하게 조상을 섬길 수 있는 의식을 설명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Choi: 2000:95-96).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남이나 장손의 의무가 강조되어졌고 효성스럽게 이 의무를 다하였을 때는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규정들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많이 간소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에게 드러지는 제사는 아직까지도 규칙적으로 가정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전통적 애도의례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초기 한국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극도로 슬픈 순간에 곡 대신해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다른 애도의례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Cho: 1999; Choi: 2000). 그러므로 기독교는 전통적인 방법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가져 왔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조상 숭배에 대해서 도전하였고, 유교식 애도의례를 따르기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 애도의례에 대한 도전은 한국사회의 산업화, 서구화에 따른 가족의 핵가족화에 따라 더욱 빠르게 가속화 되

어져 갔다(Choi: 2000:127).

위에서 한국의 죽음관과 애도의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종교,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러한 종교들은 사별가족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례과정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의례과정은 사별가족들의 애도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 한국인의 애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한국인의 전통적 애도 과정

애도의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애도의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Rosenblatt et al.: 1976). 한국인의 애도과정은 샤머니즘,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고(Choi: 2000) 할 수 있다. 특히 유교는 애도의식과 장례의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례를 요구해 왔다. 애도의식은 매우 복잡하며 죽음 이후 3년이 될 때 까지 약 30단계의 애도과정이 있다(Heo: 1999)고 한다. 이런 애도 과정은 대개 개별 가족 차원 보다는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중 전체가 엄격한 가족의 위계질서에 따라 참여하였다. 특정종교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러한 애도의식을 지켰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이전 전통에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임종과 그 이후

가족들은 가족의 임종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때, 가족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지키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죽어가는 자를 돌보았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혼자 두는 것을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하였으므로 가족들은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를 함께 기다린다(Cho: 1990:961). 가족이 임종 하자마자 둘러 앉아있는 가족들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곡을 시작한다. 가슴을 내리치며 소리를 내어 크게 우는 소리는 가족들이 고인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슬프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함께 우는 소리가 집밖으로 터지듯이 나가 마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과 같이 들린다.

이렇게 울고 나서 임종을 본 가족 중 한 사람이 '고복의식'을 시작한다. 마당이나 지붕에서 고인의 옷을 흔들면서 '복'이라고 외치며 고인의 이름을 세 번 부른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인의 내재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죽은 후 영혼이 스스로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강제로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돌아와" 또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부르짖는다. 이 의식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보여지며(Janelli and Yim: 1982:59; Choi: 2000:130),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Kim: 1999). 사별가족들은 고인이 방금 고인이 사후여행을 시작하였고 그 영혼이 시신(몸)과 집 근처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죽음을 확인해주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므로써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충격은 보편적이며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Bowlby: 1980), 한국인들은 죽음의 충격을 함께 모여서 집단적인 애도의식을 통해서 승화시켰다. 또한 이렇게 큰소리로 외치고 곡하는 것을 통해 마을에도 죽음을 처음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다.

장례의식

최소한 죽은 후 3일 후에 지낸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개 사별가족과 사회적으로 좋은 유대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상객들은 고인보다는 사별가족에게 더 관심을 보인다. 장례식날 이른 아침에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집 앞에 모여 있고, 고인이 살던 집 안에서는 작별을 위한 발인제를 시작한다(Janelli and Yim: 1982:61). 이 예식이 끝나면 붉은 천으로 만든 것발과 상여, 혼이 담긴 상자와 조상의 상을 뒤에서 모은다. 상여꾼의 종소리를 따라 행렬이 이어진다. 장례운율의 주제는 불교,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면 그들과 자손에게 베푸신 헌신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사후세계로의 어려운 여행과 이승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나이가 들며 죽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담겨있다(Janelli and Yim: 1982:66-70). 또한 묘의 방향과 토양의 질을 토대로 정확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는 선산이나 가족묘를 쓰게 된다. 산소의 터가 나쁘면 후손들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좋은 묘자리를 정하는 것이 남아 있는 가족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한국인들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사별가족과 고인과의 굳은 결속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며 후손들은 선조의 묘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별가족과 고인이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장례 후 애도단계

산소에서 돌아온 후에 가족들은 계속하여 소리를 내어 곡을 하는데, 이렇게 소리 내어 우는 의식을 '반곡'이라고 한다(Bae: 1992). 집으로 와서 상주는 조그마한 상청을 주로 마루나 베란다에 만들어 놓고 석달이나 혹은 삼년 동안 애도하게 된다. 상청은 주로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는 작은 상인데, 이것은 조상의 밥상이 된다. 상청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고, 가족들은 고인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접한다. 가족은 매일 아침 제사음식을 차려 놓고 사별 가족 중 가장 연장자가 고인에게 인사를 드린다. 소상은 상을 당한 후 13개월 만인 첫 번째 기일에 거행하는 애도의례이고, 대상은 상을 당한 후 25개월 만인 두 번째 기일에 거행한다. 상을 당한지 3년 후, 신주를 정원에 위치한 조상을 모시는 작은 사당으로 옮긴다. 특히 3년이란 기간의 상주의 애도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별가족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결과 한국인의 사별적응기간은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전통에 의하며 추모식은 3년이며 서양의 2년과 동일하다(Cho: 1990).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3년 동안 자식으로서의 효도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사의식은 부모가 돌아가신 첫째, 둘째 해 제사일 까지 하게 된다. 때로는 가족의 친구들, 친척들이 특히 고인의 아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기도 한다(Moon: 1974).

4. 한국인의 애도과정을 통하여 본 문화적 가치와 규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례관습과 규칙들은 엄격히 문화적 체계이며 이러한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오고 있다. 비록 몇몇의 의식은 간단해 지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현대 한국의 삶 속에서 지켜져 오고 있는 의식이 있다. 이러한 애도과정은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한국의 애도행위는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가족의 규칙 혹은 집단적인 슬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애도의식은 적절한 의식을 통하여 마치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듯 조상에 대한 효심 있는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가족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집단적 슬픔표현이 가족 개인구성원의 슬픔표현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와 같이 유교는 가족구성원 개인에 대해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가족의 집단성을 강조하여 가족의 조화와 협조를 중요한 가족의 가치로 간주하였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제도는 공자의 유교원리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오륜에 따라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질서가 특징지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부자사이에는 애정(친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의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적절한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충실함(신뢰감)이 있어야 한다(Chang: 1978:288). 지금도 이러한 원칙들이 한국인의 삶 속에서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부자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에 의하여 가정의 중심 이루어진다. 아들위의 아버지, 아내 위의 남편으로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된다.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의 가장 연장자인 큰아들이 가족의 계승자가 되며 이 아들은 장례식을 잘 치러야 하며 애도의 기간에 따라서 해마다 제사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Moon: 1974). 가부장적 제도에서, '효'란 절대적인 도덕규범이며, 우선적으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같이 명령에 복종하며, 통제를 받으며 종속적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지시)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식들이 '효'에 거역하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하였다(Lee: 1977).

성에 따라 규정된 역할

여자들은 애도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이 있다. 장례식을 할 때 동네에서 묘지까지 갈 때 남자들만 따라간다. 여자들은 다른 길로 가서 묘지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식으로 장례에 참여한다. 가족내의 여성들은 언제나 커다란 행사로부터 제외된다. 배제되는 이유는 한국의

혼인제도와 연관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가족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으며 딸은 어머니의 역할을 계승한다. 딸들은 결혼과 함께 항상 문중에서 떠나는 반면에 시집오는 여자들은 다른 집안에서 들이므로 혈연중심 가족에서 분리가 된다(Dredge: 1978:19). 그러므로 한국의 애도의례는 '장자중심'이며 '남성중심'이다.

한국인의 슬픔표현

고인에 대하여 대화 혹은 예를 들면 울음과 같이 자신들의 슬픔을 나누는 것을 삼가 하는 경향이 있고 유교의 애도의례에 따라 '곡'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에서와 다소 비슷한데, 중국에서는 전문적으로 애도하는 사람을 고용한다. 특정한 애도식 혹은 의식에는 집단적으로 고인의 가족들이 '곡'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규례는 사회적 애도표현의 허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별 2년 후 사별가족은 애도의식 기간 동안 울었을 지도 모르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의식시간 중이라도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다른 규칙이 있으며 개인적인 슬픔은 무시되어 진다 (Choi: 1991; Kim: 1999).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의 한국인들의 슬픔반응에도 영향을 주어 사람들 앞에서 슬픔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상여꾼들의 장례식 운율은 한국의 신앙체제와 철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다. 장례과정에서의 상여꾼의 종소리와 운율은 사별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며 슬픔을 나누도록 격려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상여 인도자는 상요소리를 통해 마치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중재자와 같이 행동을 하며 사별가족을 동정을 하며 감정이입이 되어 상실의 아픔을 위로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삶의 메시지를 준다.

애도의 상징적인 표현

흰색의 상복은 매년 전통적인 장례의식과 장례 후 일정 기간 동안 입곤 하였다. 고인의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족 중 여자들은 단추가 없는 대마로 만든 옷을 입고 상주는 머리를 풀고 신을 벗고, 감침질을 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고인의 아들들은 지팡이를 짚도록 되어있으며, 딸이나, 며느리들은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극단적인 슬픔으로 인하여 매우 약해졌으므로 지팡이로 자신을 지탱한다는 의미이며, 여성들은 머리 위에 마로 만든 수건을 쓰고 어깨에 마로 만든 띠를 두르고 밧줄노끈으로 벨트를 한다. 이것 또한 극단적인 슬픔과 충격의 표현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별가족은 상징적인 의상과 걸음으로 나타난 모습을 이용하여 그들의 충격과 슬픔을 표현한다. 상복의 형태에 따라 혈연관계를 상실하게 된 슬픔을 표현한다. 상을 당한 사람이 특별한 애도의상을 통해 슬픔을 표현하고 상중임을 알리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한국인의 상복은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가족들의 죄책감을 주된 정서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자식들은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죽음의 세계로 가도록 허용하였다는 죄의식을 갖게끔 한다. 그러므로 상주는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하여 부모님을 죽게 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최: 2000).

조상숭배의 전통

죽은 조상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믿고 4대에 걸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한국에서 조상들에 대한 제사 의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무라기보다는 확대가족 차원에서 예식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제사의식은 사별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무이며, 특히 가족 중 가장어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만약 이 의무를 성실이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가 뒤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엄격한 애도의식을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가족들은 조상들에게 정구적인 제사의식을 함께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유대관계를 단단히 결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예식들은 가족의 통합 과 나라의 단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개인의 애도와 정서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지역사회의 참여

한국인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애도의식을 함께 하

여 줌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계' 혹은 '품앗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자체적으로 돕는 제도이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 혼인이나, 장례식 등 큰일이 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애도의식을 할 때 사람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서로 돕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족 내의 죽음을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었다.

5. 한국 사회변화와 전통애도의례의 의미

1960년부터 1980년간의 산업화는 한국사회를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은 농촌으로부터 서구화 문화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도시로 이주하여 살게 되어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는 핵가족 중심의 가족 형태로 변화 되어졌다(Cho: 1990; Lee: 1997).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는 애도의례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신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가족의례준칙(1973)은 모든 가족의례들을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간소한 방법으로 치러지도록 규정하였다. 정부에서는 가족의례준칙을 통해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례의식에 나타나는 샤머니즘적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였다. 이 새로운 준칙을 통해 그동안 행하여져 왔던 많은 것들이 금지 되었는데, 예를 들면, 고인이 돌아가신 후 제공되는 사자밥을 차려 놓는 것, 장례식날 맨발을 벗거나 금식을 하는 행위, 상여꾼의 소리라든지, 장지에서 돌아온 후 행하여 지는 곡이라든지, 마루에 영정을 모시고 날마다 음식을 올리는 상청의 설치하는 것 등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장례식 날 고인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향을 피우는 행위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죽음관과 애도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은 변화되었으나 전통적인 요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면,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나 차례등도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변화되었으나 조상 숭배에 대한 기본 원리들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인의 죽음관과 애도관이 형성되는 데는 종교들

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애도의례는 유교, 불교의 많은 영향을 받아 애도반응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족과 확대가족, 동네 주민의 참여 등을 통해 집단적인 다양한 방법의 우리의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고 나누었다. 반면, 슬퍼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개인의 감정이 쉽게 무시되므로, 사별가족은 억압된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해 정서적인 고독감을 감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별가족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나누기 보다는 감정의 문을 닫아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혼자 있을 때나 비밀스런 곳에서만이 개인적인 슬픔을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의식행사를 진행 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의식을 행하는 것에 중요성을 둔다. 이러한 방식이 한국사회의 슬픔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사별가족은 죽음, 고인, 슬픔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Bae, Y. G.(1992). *Jugeumhageuiihae [Understanding Death]*. Seoul: kyomunsa.
- Chang, Dae H.(1978). The Korean Family, in M. S. Das and P. D. Berdis (eds.), *The Family in Asia*.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Cho, J. Kuk(1999). Hankukineui saengsakwankwa imjongeuisikekwanhanyungu [A Study on Korean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Haeseokhakkwa tochakhwa [Hermeneutics and Indigenisation]*]. Seoul: Handeul.
- Cho, J. Kuk(1999). Hankukineui saengsakwankwa imjongeuisikekwanhanyungu [A Study on Korean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Haeseokhakkwa tochakhwa [Hermeneutics and Indigenisation]*]. Seoul: Handeul.
- Cho, K.S.(1990). Ancestral practices in Korean churches: evangelical protestant understanding,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Choi, D. Sik(2000). Hankukineui jukeumkwon [Korean Understanding of Death], *Seokdangnonchong* Vol 29. Seokdang jeontongmunhwayeonkuwon at University of Donga.
- Choi, K. Seong(1991). *Hankukineui han [Han of Koreans]*. Seoul: Yejeonsa.
- Dredge, C. P.(1978). What's in a funeral? Korean, American-Mormon, and Jewish Rites Compared, in Spencer J. Palmer, (ed.), *Deity and Death*.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re. Brigham Young University.
- Heo, Y. Ho(1999). Jeontongsangryereul tonghaeseobon jukeum [Death viewed through the Traditional Funeral Ceremony], *Hankukmunhakhwajukeum bipyeong [Korean Literature Theory and Criticism]*.
- Janelli, R. L. and Yim, D. H.(1982).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u, Y. Jae(1980). *Jukeumeui euimi [The Meaning of Death]*. Seoul: Buseon Publications.
- Kim, Y. Kyu(1999, August). Hyeondaejeok sanghwangeui jukeummit geu jeongkwaeui yeonkye [Death in the Modern Context and its relation with the Tradition], *Hankuk munhwaironkwa bipyeong*.
- Lee, K.K.(1997). *Korean family and kinship*. Seoul: Jipmmondang Publishing Company.
- Moon, Seung Gyu(1974). Ancestor Worship in Korea: Tradition and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V, Number 2. (Autumn).
- Park, T. Sam(1994). *Hankukmunhakhwajukeum [Korean Literature and Death]*. Seoul: Munhakkwa jiseong.
- Rosenblatt, C.P., Walsh, R.P., & Jackson, P. A. (1976). *Grief and mourn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Inc.) HRAF Press.
- Ryu, D.S.(1978). *Minsok Jongkyowa hankukmunhwa [The folk religions and the Korean cultures]*. Seoul: Hyondae Sasangsa.

ABSTRACT

Bereavement 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To determine which are the culturally specific factors of Korean bereavement, this chapter focuses on the view of death and the traditional mourning process which reflect Korean values and norms. The formation of the Korean view and understanding of death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ree of its major traditional religions: Shaman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Park: 1994; Hao: 1999) and Christianity more recently. Each religion has a different view of death and the appropriate expression of mourning. Korea accommodates funeral customs and rules strictly as a cultural system and has retained these traditions over a long period; hence, some of the traditional funeral rituals still remain in modern Korean life, although some of the rites have been simplified. We have looked at the various ways in which grief and mourning is displayed and shared in a collective manner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fits in well within the other Eastern cultures that are collectively organized, and contrary to the Eurocentric models do not hastily seek to detach the living from the dead and recognize that grief is a long process, and different individuals may take different amounts of time to recover from the grief. The view of death and bereavement in Korea has sprung from the roots of three Korean religions, together with the recent addition of Christianity, although they mainly result from the three earlier religions. The beliefs of these

religions are still closely linked together in the rituals of Korean bereavement on both conscious and unconscious levels. The influence of these religions is evident in practice through the bereaved family's mourning reactions, funeral rites and customs and its views about death. Korea used to have a period of mourning for three years, following traditional mourning rites; then the chief mourner and the bereaved families could return to their normal life. In spite of this long mourning process for the bereaved family, once the funeral ceremony is finished, people expect the bereaved family not to express their grief in public; even the bereaved family does not like to talk about death.

The process for bereaved people is related to mourning processes in terms of detachment from the deceased in order to start a new life. Relatives and the community recommend the performance of the kut ceremony for relieving the grief of the bereaved. When one family member dies in an unlucky way, the bereaved family may have some fear or other psychological reactions of grief such as pain, depression, insomnia and nightmares, hallucinations or other physical reactions. Unlucky deaths give the bereaved a very painful time and these types of reactions are often more serious than reactions to natural death. But through the kut ceremony, the bereaved family can start to make a new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The taboo of this type of death and death generally remains a crucial aspect of the isolation that bereaved people might face and the collective nature of mourning (even where it is still present) is unable to address this aspect of the privatization of grief.